

활동 보고서

담당	조장	팀원	팀원	팀원
김재현	김도현	김은송	김영준	고병준

작성일자	20 년 월 일	보고자	(인)
제목	대구 12경 웹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활동 보고서		
활동분야	웹 개발 /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기간	2025년 4월 20일 ~ 2025년 6월 4일		
협업기간	2025년 4월 20일 ~ 2025년 6월 4일 (매주 1회 활동, 총 8회)		
활동목적	<p>본 활동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웹 개발 기술을 익히고 실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대구 12경’을 주제로 선정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웹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HTML, CSS, JavaScript 등 프론트엔드 기술과 server.js를 활용한 간단한 백엔드 환경 속에서 직접 구현해보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구성력, 팀워크 기반의 협업 경험, 역할 분담을 통한 책임감, 기술 학습과 지도 능력을 동시에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p>		
주요내용	<p>2025년 4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총 8회에 걸쳐 ‘대구 12경’을 소개하는 웹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초기 회의에서는 웹 콘텐츠 제작과 게임 개발 중 어떤 방향이 적합한지를 논의하였으며, 팀원 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웹페이지 제작으로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후 각자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주제별 기획안을 정리하고, 기술 구조 학습과 간단한 실습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기반을 다졌다.</p> <p>4월 30일 회의에서는 server.js와 JSON 구조에 대한 간단한 개념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고병준은 HTML 기본 구조 작성과 JavaScript 기능 구현, JSON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처리 등을 맡았다. 김은송은 HTML 콘텐츠 정리와 CSS를 활용한 시각 디자인, JSON 데이터 입력을 일부 담당했다. 강영준은 웹페이지 전반의 레이아웃 구성과 CSS 스타일링 보완 작업에 주력했다. 김재현은 HTML과 JavaScript 기능 구현 일부를 담당했으며, 동시에 회의록 작성, 문서 정리, 보고서 편집 등 전체 프로젝트의 문서화 작업을 주도하였다. 김도현은 server.js를 활용한 간단한 백엔드 서버 구성과 JSON 데이터 구조 설계 전반을 지도하며, 기술 흐름을 다른 팀원에게 설명하고 실습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p> <p>개발 과정에서는 HTML과 CSS를 활용해 관광지 콘텐츠 틀을 작성하고, JavaScript를 통해 다국어 전환 버튼, 탭 전환 등 간단한 인터랙션 기능을 구현했다. JSON은 외부 API 없이 자체 데이터 구성용으로 활용하였으며, 관광지 이름, 설명, 이미지 경로, 다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텍스트 등을 구조화하여 일부 페이지에 적용하였다. 북마크 기능은 논의되었으나 실제 구현에는 이르지 못했다.</p>		
활동결과	<p>총 기능 중 약 30% 정도가 구현된 상태이나, 기술 학습과 협업 경험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 HTML과 CSS로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고, JavaScript를 이용해 일부 기능을 작동 시키며, JSON을 활용한 구조 설계와 데이터 처리 흐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server.js 기반의 간단한 서버 구성은 팀원들에게 생소한 영역이었지만, 반복 학습과 실습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다.</p> <p>김도현은 server.js와 JSON 구조에 대한 기술 지도를 수행하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술 방향을 안내했다. 고병준은 기능 구현과 데이터 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김은송과 강영준은 시각적 완성도와 콘텐츠 구성에 주력했다. 김재현은 기능 구현뿐 아니라 팀의 문서 정리와 기록을 주도하며 활동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기여하였다.</p> <p>비록 초기 계획했던 기능이 모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기술적 성장과 팀워크를 경험할 수 있었다. 현재는 전체 기능 중 약 30%가 구현된 상태이며, 남은 기능(다국어 완성도 보완, 북마크 기능 구현, 반응형 디자인 적용 등)은 방향 기간 중 추가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p>		